

기획논문

삼국시대 두개골 매납 의례·장례의 내용과 의미

사람의 가분성을 중심으로

하대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고고학 전공

hasson98@naver.com

국문초록

본고는 삼국시대 전후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두개골의 단독 출토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사람의 가분성(dividuality)과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사람다움(personhood)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정황을 주로 전쟁·치벌·재난 등 예외적 상황의 결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부여 쌍북리, 공주 공산성, 경주 서부동·노서동 등 수변유구의 두개골 매납, 경산 조영동과 대구 가천동의 신라 고분 두개골 부장, 정선 아우라지와 원주 범천리의 도치웅관묘,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의 부분화장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두개골이 선별·관리·재매납의 작업연쇄 속에서 의례적 자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두개골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환유적 매개로 기능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다움을 재구성하였다. 수변유구의 두개골은 봉헌적 성격을 포함한 의례적 매납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은 기존의 사회적 표지가 일부 유지되면서도 주피장자의 장례질서에 종속되어, 두개골 주인의 사람다움이 전환·약화되는 신체-유물화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도치웅관묘의 두개골 매장은 죽은 자의 정체성과 기억을 고정하는 조상화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매리 석실의 부분화장은 화장된 몸체와 비화장 두개골을 결합하여 변형된 사람다움을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삼국시대 장례·의례가 항상 불가분의 개인 신체를 전제한 것은 아니며, 일부 맥락에서는 신체의 가분성을 통한 두개골 매납이 죽음 이후의 관계, 기억,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의례적 기술로 활용되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삼국시대, 두개골 매납, 가분성, 사람다움, 신체-유물, 도치웅관묘, 부분화장

투고일 2026. 6. 7. 심사일 2026. 8. 7.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Forms and Meanings of Skull Deposition in Ritual and Mortuary Practices during Korea's Three Kingdoms Period: Focusing on the Dividuality of the Person

Ha, Daeryong

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son98@naver.co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ases of isolated skull deposition identifi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and around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nterprets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dividuality and relationally constituted personhood.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explain cases in which the head and body were separated as the result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war, punishment, or disaster. In contrast, this paper compares skull depositions from water-related features at Buyeo Ssangbuk-ri, Gongju Gongsanseong, and Gyeongju Seobu-dong and Noseo-dong; skulls deposited in Silla tombs at Gyeongsan Joyeong-dong and Daegu Gacheon-dong; inverted jar burials from Jeongseon Auraji and Wonju Beopcheon-ri; and the partial cremation burial in the Goguryeo-style stone chamber at Chuncheon Sinmae-ri. Through this comparison, the paper argues that skulls were transformed into ritual resources through a chaîne opératoire of selection, curation, and redeposition.

The skull functioned as a synecdochic medium through which a part could represent the whole, while also reconstituting personhoo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its depositional context. Skulls from water-related features may be understood as ritual offerings, whereas skulls deposited in Silla tombs were likely transformed into body-objects within a context of depersonalization or the making of non-persons. By contrast, skull deposition in inverted jar burials can be interpreted as a form of ancestralization that fixed the identity and memory of the dead in a specific place. The partial cremation burial at Sinmae-ri may be understood as a case in which transformed personhood was reconstructed by combining a cremated body with an uncremated skull. In sum, this paper argues that mortuary and ritual practic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did not always presuppose the indivisibility of the individual body. Rather, in certain contexts, the dividuality of the body was employed as a ritual technique for reconfiguring relationships, memory, and place after death.

Keywords: Three Kingdoms period, skull deposition, dividuality, personhood, body-object, inverted jar burial, partial cremation

Received June 7, 2026 Reviewed August 7,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서론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인간 유체의 보존 환경에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삼국시대의 고분은 압도적 조사량에도 불구하고 피장자의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것처럼 낮은 확률을 뚫고 잔존한 인골 자료는, 대체로 두 가지 맥락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단독매장 정황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주로 목관/목곽/석곽묘 계열의 묘제에서 그러한데, 이 맥락에서 피장자는 일차장 정황에서 하나의 매장주체부를 독점하며, 다른 피장자와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 영남지방 목곽/석곽묘에서는 순장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 맥락에서 종속성¹을 통해 주피장자는 무덤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점은 변함없다.

둘째는 석실계 묘제에서 다인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추가장을 전제로 한 이러한 무덤에서는 하나의 매장주체부를 여러 피장자가 공유하지만, 시상, 두침과 족침 등 각각의 독점적인 공간을 점유한다. 추가장 과정에서 선장(先葬)된 피장자의 유해를 이동·집결하더라도, 개별 피장자의 온전성을 존중하여 다른 개체와의 완전한 해체·혼합은 기피되는 경향이 뚜렷하다.² 이처럼 삼국시대 인골 자료의 절대다수가 확인되는 관·곽·실의 매장에서는, 개별 피장자의 경계와 완전성이 강하게 준수된다. 모든 피장자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공간을 가지며, 피장자의 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설사 육탈 후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다른 이의 유골과 섞이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몸은 불가분(不可分)이며 다른 사람, 다른 요소와 섞일 수 없다’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1 권오영, 「고대 영남 지방의 순장」, 『한국고대사논총』 4(1992), 5~59쪽.

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정·하대룡·박순영·우은진·이청규·김대환·김종일·한영희,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8(2008), 128~155쪽; 김현석·우하영·이하얀, 「집골로 본 추가장 과정에 대한 예: 경주 동천동 373번지 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7(2020), 209~230쪽; 김재현, 「東海市 湫巖洞 B地區古墳群의 埋葬例」, 『석당논총』 20(1994), 97~136쪽.

는, 오늘날의 매장 관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별다른 해석상의 난점이 없다. 망자의 신체가 불가분이라는 관점에서는, 피장자의 머리와 몸이 나뉘어져 두개골이 독립적으로 발견되는 등의 정황은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모욕하는 처벌, 또는 전쟁·재난과 같은 상황론으로 설명되기 쉽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몸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일반 관점에서나 고고학적 관점에서 개인과 신체의 불가분성을 전제하는 관점이 일반론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머리와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징벌의 맥락에서 수행된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도 시신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묻는 등의 행위가 전쟁, 처벌, 모욕의 맥락에서 기술된 점에서,³ 몸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인골고고학에서 사례 축적이 가장 풍부한 조선시대 회곽묘는 성리학적 신체관의 상장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성리학의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과, 이른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몸과 터럭과 살 갖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의 신체관은 사후의 상장례에서도 신체 훼손·교란을 강하게 금지했고, 이러한 관념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의 규범을 통해 물질화한 결과물이 회곽묘의 상장례라 할 수 있다. 회곽묘에서 나타나는 신체 인식과 처리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골 자료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처리의 해석에 무의식적 선입견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 파편화와 관련된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해 읽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논자 역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⁴

3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참수기사, 즉 延丕, 釗(近仇首王), 官昌, 異次頓, 張保臯 등의 참수는 예외 없이 전쟁과 처벌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日本書紀』 欽明紀에 등장하는, 신라가 성왕의 머리는 갖고 몸만 돌려보냈다는 기사에서도 참수와 신체 분리는 처벌, 모욕, 나아가 군사적 승리의 과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4 조선시대 회곽묘를 언급하는 것은 성리학적 신체관이 삼국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연속되었다고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와 삼국시대의 장례관념은 구분되어야 하며, 회곽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예외적’인 사례들, 특히 두개골이 단독으로 출토하거나 별도로 처리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장례와 의례의 여러 맥락에서 신체가 해체·절단·파편화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무덤은 물론 우물, 연못, 수로 등 장례 맥락 바깥의 공간에서도 확인된다. 종래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전쟁 등 파국적 사건에 의한 특정한 정황을 상정하여 설명하였으나, 사례 증가를 통해 점차 어떤 정형성을 띠면서 ‘상황론’만으로는 설명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적절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의 개인과 몸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전제와 달랐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장례와 의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 전후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두개골의 분리, 이동, 선택적 보관과 재매납은 단순한 신체 훼손을 넘어, 그 사회가 사람과 죽음을 관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두개골의 선별적, 독립적 처리는 반드시 처벌, 처형 혹은 특정 상황의 결과라기보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분할성(fragmentation)을 전제로 한 의례의 결과일 수 있다. 종래의 접근은 사례를 모아 특정한 명칭을 부여할 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고의 관점에서는 유형화를 넘어 사람다움(personhood)⁵의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고에서 다루는 가분성과 침투성은 삼국시대인이 명시적으로 공유한 신체관을 직접 복원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두개골의 분리·이동·관리·재매납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이다. 따라서 두개골이 선별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삼국시대 사회 전체의 인간 존재론이 가분적 관점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체 일부가 전신에서 분리된 뒤 이동되고 새로운 장소와 맥락에 편입되는 행

표는 삼국시대 신체관의 직접적인 비교자료가 될 수 없다. 여기서는 회곽묘가 한국 인골 고고학의 주요 경험적 기반이 되면서 형성된 연구자의 선이해를 성찰하기 위한 연구사적 사례로만 언급하였다.

5 크리스 파울러(저), 우정연(역), 『고고학과 인류학을 통해 본 사람다움』(서울: 서경문화사, 2018); C. Fowler, "Relational Personhood Revisited,"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26, No. 3(2016), pp. 397~412.

위가 반복적·구조화된 형태로 확인된다면, 적어도 특정한 의례적 맥락에서 신체가 가분적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고에서 서로 다른 정치체·지역·시기의 사례를 함께 검토하는 목적은 삼국시대 전후 한반도에 공통된 신체관이나 의례 전통을 복원하는 데 있지 않다. 두개골의 분리, 이동, 관리와 최종 매납이라는 동일한 질문을 통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두개골이 사람·장소·기억·위계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사람의 가분성/침투성과 두개골의 대표성

1. 가분성을 토대로 본 두개골의 대표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는 ‘불가분의 개인’ 관점이 특정한 문화적 관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분성(dividuality)과 침투성(permeability)을 토대로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사람다움의 논의를 해석의 토대로 삼는다.⁶ 분할·전달·공유될 수 있는 ‘가분적 사람(dividual)’ 개념은, 사람을 하나의 폐쇄된 개체가 아니라 다중의 관계에서 조립되고 변형되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한 ‘부분’을 떼어 타자에게 주거나(가분성), 물질·성질의 흐름이 경계를 가로질러 섞이는(침투성) 관계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매장 의례는 개인의 특정성,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과 물건, 사람과 장소를 ‘연쇄(enchainment)’시키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⁷ 이렇다고 한다면, 그간 파국적인 결과물로 이해했던 시신의 해체나, 특수한 행위의 흔적으로 보

6 크리스 파울러, 위의 책(2018); C. Fowler, *op. cit.* (2016); J. Brück, "Material Metaphors: The Relation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Early Bronze Age Burials in Ireland and Britain,"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 4, No. 3(2004), pp. 307~333.

7 J. Chapman,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 (London: Routledge, 2000), pp. 4~8.

있던 부분유해는, 반대로 공인되고 규범화된 장례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머리(두개골)는 개인 정체성이 집중되는 신체 부위로, 여러 맥락에서 중요한 부위로 다뤄졌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고고학에서도 다수의 사례에서 두개골의 수집, 가공, 매납이 확인된다. 이는 두개골을 비롯한 신체 부위가 일차적인 장례 이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전시되었으며 특정한 맥락에서 장소를 변형하는 매개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유물(body-object)’은 사람과 사물 범주를 넘나드는 존재로 볼 수 있으며, 두개골을 신체에서 분리·선별·재매납하는 행위는, 망자의 사람다움을 ① 강화하거나, ② 다른 성격의 대상(봉헌물/표지/매개)으로 전환하거나, ③ 비인간적 존재(non-person)로 격하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⁸ 본고의 일차적 과제는, 한국고고학의 각 사례군이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두개골을 비롯한 신체가 부분적·독립적으로 다뤄질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대표성이다. J. 채프먼(J. Chapman)⁹은 매장된 두개골 등 신체의 일부분을 예외나 교란으로 보지 않고, 사람다움과 사회관계가 물질적으로 표상/구성되는 장(場)으로 보며, 이때 신체 부분 매납의 기본 논리를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리적 환유(syncecdoche)’로 본다. 선별된 신체의 일부, 특히 두개골이 신체 전체, 그 사람, 나아가 조상과의 관계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의 부분 매납은 사람다움의 재구성이자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잇는 의례의 기술(技術)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삼국시대 인골 자료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시도한다. 첫째,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 나눌 수 있고 다른 존재와 섞일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의례 맥락에서 신체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이동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었는지 검토한다. 둘째, 신체의 파편화가 전쟁·처벌·폭력의 결과일 가능성을

8 M. H. Eriksen, “‘Body-Objects’ and Personhood in the Iron and Viking Ages: Processing, Curating, and Depositing Skulls in Domestic Space,” *World Archaeology*, Vol. 52, No. 1(2020), pp. 103~119.

9 J. Chapman, *op. cit.* (2000), pp. 144~147.

10 크리스 파울러, 앞의 책(2018); C. Fowler, *op. cit.* (2016); J. Brück, *op. cit.* (2004).

배제하지 않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묶고 재구성하는 의례적 기술¹¹⁾의 하나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다. 셋째, 통념적인 매장 유구 밖에 매납된 신체의 특정 부위는 반드시 모독·처벌의 의미로만 단정하지 않고, 사람다움을 유지·강화, 변형·전환, 약화·격하하려는 의례적 실천일 가능성을 검토한다.¹²⁾ 이러한 관점은 모든 부분유해가 동일한 가분적 신체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분성과 침투성을 기존의 상황론을 대체하는 원인으로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신체의 분할과 재맥락화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관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에 조선시대 신체 규범과 현대적 개인 관념이 부여한 해석의 편향을 토대로 이례·예외·특이·특수 등의 수식어로만 기술되던 삼국시대의 부분유해 매장과 장례 외 맥락의 매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발적으로 확인되었고 어떤 패턴을 통한 유형화가 매우 어려웠기에 해석에 곤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던 탓이 가장 크다고 무덤 연구자로서, 인골고고학자로서 자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극복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부분유해를 가분성과 침투성 일변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모든 부분유해를 가분성, 침투성으로만 단선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예외와 특이로만 설명되었던 사례들을 일별하고, 사람다움이 관계적으로 구성되며 나누어질 수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시각이 장례와 의례에도 반영되어 시신과 몸을 다루는 행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두개골 선별·관리(curation)의 작업연쇄

머리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집중되는 부위이다. 따라서 ‘불가분의 개인’ 관점에서 본다면 몸에서 머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제거·변형하여 비인간의

11 J. Chapman, *op. cit.* (2000), pp. 134~146.

12 M. H. Eriksen, *op. cit.* (2020), pp. 111~113.

존재로 격하시키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람다움을 관계적이고 가분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격하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고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불가분의 개인 관점에서 인간 신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머리만 발견되는 정황은 전쟁이나 처형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특이한 매장 풍속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시대(기원후 1~10세기) 두개골 의례 연구에 따르면, 두개골을 분리, 가공하고 퇴적시키는 행위는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보며, 이러한 새로운 존재를 신체 유물(body-object)로 칭한다.¹³

M. H. 에릭센(M. H. Eriksen)이 제시한 ‘신체 유물(body-object)’의 변환은, 두개골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그 변환을 작동시키는 핵심 행위가 ‘선별적 보관·관리(curation)’라 할 수 있다. 선별·관리는 단순히 “두개골이 따로 출토된다”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신체 일부(특히 두개골)를 선택적으로 분리해 시간차를 두고 다루는 일련의 기술적·의례적 작업을 뜻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이유는 (1) 신체가 특정 조건에서 가분적, 즉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2) 나누어진 신체의 구성요소(이 경우 두개골)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며,¹⁴ (3) 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이동, 안치하는 행위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와 조상 사이의 관계를 물질적으로 매개(연쇄, enchainment)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누어진 두개골이 특정한 공간에 매납·안치되면서 그 공간이 새로운 장소성을 얻게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개골에 대한 선별·관리는 시신을 훼손한 흔적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다루는 의례적 방법이자, 일련의 작업연쇄(chaine operative)일 수 있다.¹⁵ 본고에서 말하는 두개골의 선별·관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

¹³ *Ibid.*

¹⁴ J. Chapman, *op. cit.* (2000), p. 144.

¹⁵ Eriksen 또한 두개골 관련 의례를 두개골의 ‘processing-curating-depositing’의 연속 과정에서 이해한다.

의할 수 있다. ① 두개골의 분리 → ② 이동 → ③ 보관/관리 → ④ 재매납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과정이며, 이 과정은 선형으로만 진행되기보다 맥락에 따라 반복, 역행, 재조합될 수 있다. 여기서 ① 분리는 참수와 같은 즉각적 절단만이 아니라, 일차장 혹은 가매장 이후(혹은 육탈 이후)의 회수·선별을 포함한다. ② 이동은 매장 지점에서 관리를 위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고, 다른 매장 지점이나 재매납 지점으로의 이동일 수도 있다. 그 이후 ③ 보관/관리가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세척이나 세부적 부위의 선별(하악골·치아의 제거 등) 등 의례적 처리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즉각적으로 재매납되는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④ 재매납은 최종적으로 특정 장소(새로운 무덤, 우물·연못·수로 등)에 구조화된 방식으로 다시 놓는 행위이며, 이 지점에서 두개골은 (1) 사람다움의 강화, (2) 봉헌물/표지로의 전환, (3) 비인간적 존재(non-person)로의 격하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¹⁶

이처럼 선별·관리를 작업연쇄의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이후 제시할 네 가지 사례군을 ‘두개골만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공통점 위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곧 각 사례는 두개골이 분리된 이후 무엇이 추가로 수행되었는가, 즉 이동, 관리, 재매납의 방식에 따라 사람다움, 관계, 장소, 기억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두개골 매납 의례와 장례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두개골 선별·관리의 작업연쇄를 비교·대조하여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6 다만 이 작업연쇄는 이후 검토할 모든 사례에서 네 단계 전체가 직접 확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두개골만 남았다는 상태와 출토 맥락을 통해 분리·이동·관리의 일부 단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며, 보관이나 세척 등 중간 과정은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한다. 따라서 작업연쇄는 동일한 절차의 복원을 위한 유형이 아니라, 각 사례에서 어느 단계까지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모형이다.

Ⅲ. 두개골 매납 의례·장례의 사례

이번 장에서는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두개골이 별도로 처리된 의례와 장례의 사례를 검토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에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전쟁·처벌 등의 상황론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고에서는 두개골의 선별적 취급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다움의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다시 검토하고, 작업연쇄의 양상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1. 수변유구의 두개골 매납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삼국시대~통일신라의 수변유적에서는 두개골이 단독 출토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수변유구는 수로, 우물, 연못지(산성 내 집수정) 등 물과 관련된 유구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유구에서 두개골이 단독 출토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1)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수로유구¹⁷⁾(〈그림1〉-①)

해당 유적의 사비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 등 뚜렷한 생활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저장 용도로 추정되는 부석유구와 수로 2기가 확인되었다. 부석유구에서는 ‘북사(北舍)’ 인장이 찍힌 토기가, 수로에서는 토기, 기와, 철기, 목기와 함께 두개골이 확인된다. 해당 두개골은 중년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하악골과 경추 등 머리의 다른 부분은 결실된 상태였다. 두개골에서는 외상이나 해체흔 등 별다른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사 구역이 넓지 않아 유적의 성격이 모호한 가운데, 출토 인골의 분석을 담당할 필자는 전쟁이나 전염병 등 파괴적인 사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상황은 보통 근처의 무덤이 교란, 파괴되면서 유골이 노출된 결과일 것이지만, 해당 구역이 사비도성 내에 위치한

17 백제문화재연구원,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부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0).

18 하대룡·이준정,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출토 백제시대 인골에 대하여」,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부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0), 198~212쪽.

점에서 사비기 도성의 기본 구성 원리 중 하나인 경외매장(京外埋葬)이 지켜지지 않을 리 없다고 보아, 도성 내부에서 인골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당시에는 도성 내부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매우 적고 조사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므로, 전쟁·전염병 등 파국적 사건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도 가능한 가설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이후 물 관련 유구에서 두개골 출토 사례가 축적되면서, 쌍복리 자료 역시 파국적 사건이나 우연한 방치뿐 아니라 두개골의 선택적 이동·매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7차 발굴조사 연못지¹⁹⁾(〈그림1〉-②)

공산성의 연못지는 공산성이 금강에 면하는 북동쪽 외곽에 위치하며, 산성 내에서도 저지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산성의 집수정이 일반적으로 입지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연못의 굴광 규모는 약 13×13m, 석축한 내부 크기는 약 10×10m 규모이다. 연못 내부에서는 토기, 철기, 기와 등 다종다양한 유물과 함께 동물뼈 등 상당량의 유기물이 출토되었고, 그중에서는 인간의 두개골 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 두개골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²⁰⁾ 정확한 출토지점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은 분명하다. 두개골은 안면부와 하악골이 결실된 상태로, 30~60세의 성인 남성으로 판단되었다. 두개골과 일부 파편을 제외하면 사지골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일체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적어도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상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특히 산성의 집수시설은 의도치 않게 유물이 보존되는 “유물덫(artifact trap)” 역할을 할 수 있다.²¹⁾ 공산성 연못지의 경우도 성 내 저지대에 위치하고, 유기물의 보존 가능성이 높은 저습지 환경이 국소적으로 형성

19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7차 발굴조사』(공주: 공주대학교박물관, 2018).

20 본문에 언급된 두개골은 저수시설에서 출토되었는데, 저수시설 출토 철기유물과 유기물은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해당 두개골은 보고에 앞서 이 논문에 먼저 일부 내용이 공개되는 셈인데, 이를 허락해주신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21 김현우, 「나말여초기 전남 동부지역 산성의 점유양상과 지방호족」, 『한국고고학보』 108(2018), 84~119쪽.



①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²²(좌: 1호 수로, 우: 출토 두개골)



②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7차 발굴조사²³(좌: 조사 전경과 연못지, 우: 출토 두개골)

그림1-수변유적 두개골 출토 사례 1 (웅진·사비백제)

되므로, ‘예외적, 특이적 상황’에 의해 사망한 이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방치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완골, 대퇴골, 경골 등 강도와 보존성이 높은 다른 부위가 일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우연한 퇴적보다는 해당 두개골이 다른 신체 부위 중에서 의도적으로 선택, 연못에 투기·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경주 서부동 93번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부지 2호 우물²⁴(〈그림2〉-①)

경주 서부동 93번지 유적에서는 도로, 수로, 수혈유구와 함께 우물 두 기가 확

22 백제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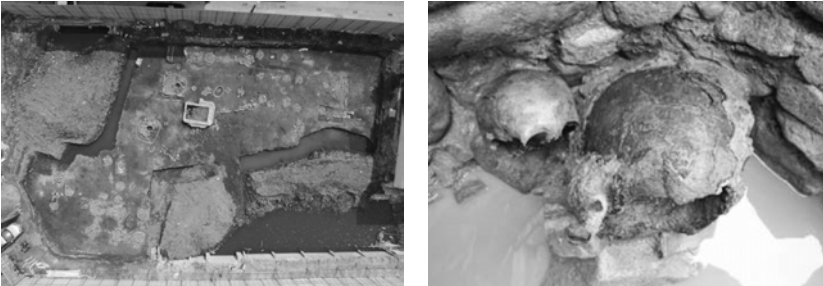
23 공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2018).

24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서부동 93번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부지 유적』(경주: 계림문화재연구원, 2018).

인되었다. 이 중에서 2호 우물의 내부 1.6m 깊이에서 두개골 한 점이 출토되었다. 안전문제로 인해 조사는 1.8m 깊이까지만 진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신체 부위의 출토가 더 이상 없는 점에서 두개골만이 우물 내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두개골은 하악골이 결실된 상태로, 30~40대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상악치의 치아는 모두 결실되었으나 치조의 상태를 보아 사망 시 최소 8점 이상의 치아가 잔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두 탈락하여 남아 있지 않다. 주변에서 탈락한 치아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 사망 후 치아의 탈락과 두개골의 최종 퇴적은 다른 지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 유구의 유물 출토 양상에서 인골의 매납은 통일신라시대에 수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① 경주 서부동 93번지 유적²⁵ (좌: 유적 전경, 우: 2호 우물과 출토 두개골)



② 경주 노서동 135-4번지 유적²⁶ (좌: 유적 전경, 우: 2호 우물과 출토 두개골)

그림2-수변유적 두개골 출토 사례 2 (통일신라)

25 계림문화재연구원, 위의 책(2018).

26 화랑문화재연구원, 『경주 노서동 135-4번지 유적』(경주: 화랑문화재연구원, 2017).

4) 경주 노서동 135-4번지 유적 2호 우물²⁷⁾(〈그림2〉-②)

노서동 135-4번지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6동과 우물 2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2호 우물을 폐기할 때 투기한 석재의 상부에서 두개골과 철술이 출토되었다. 도면상으로 판단할 때 구지표면 아래 약 2m 깊이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며, 여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개골 이외 다른 부위는 일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토 인골에 대한 체질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아 정확한 잔존 부위와 보존 상태, 연령이나 성별 모두 불명이다.

이상과 같이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수로 출토 두개골,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연못지 출토 두개골, 경주 서부동 93번지 2호 우물 출토 두개골, 경주 노서동 135-4번지 2호 우물 출토 두개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은 일견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특정한 공통성을 지닌다.

첫째는 네 경우 모두 도성 내부의 수변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쌍북리의 경우 사비 도성 내부의 수로 유구의 사비기층에서 출토되었고, 공산성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 웅진기의 웅진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곳이며, 두개골은 산성 내부 집수정의 웅진기 층위에서 출토되었다. 경주 서부동, 노서동의 우물들은 통일신라시대에 도성 경내였다.

둘째는 매장의례 맥락의 바깥에서 출토되었으되, 하악골과 경추, 일부 치아 등 머리를 이루는 다른 부위가 결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장소에 매장되었다가, 두개골만 선택되어 현재 위치에 매납되었다는 정황, 즉 선별·관리(curated)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는 퇴적 과정에서 일어난 파손은 확인되지만, 사인과 관련된 외상이나 해체 과정에서 생길 법한 절단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 전쟁·처벌·살인 등 폭력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함께 확인되지 않고 두개골만 남았다는 점은, 두개골의 선택적 이동·매납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는 체질적 분석이 이루어진 쌍북리·공산성·서부동의 세 사례가 모두 성인 남성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별이나 연령이 두개골을 선택하는 기

27 화랑문화재연구원, 위의 책(2017).

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표본은 세 사례에 불과하고 노동자 자료는 성별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인 선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향후 자료 증가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패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 경우가 서로 시기적, 지역적 격차가 있고 백제와 신라라는 정치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한 공통성을 지니는 이유는, 아마도 유사한 성격의 의례에 유사한 목적으로 두개골을 사용해서일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물을 비롯한 수변유적은 다양한 의례의 대상이었다.²⁸ 다만 현재 자료로는 두개골이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바쳐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두개골을 일상적인 폐기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특정 수변공간에 투입하고 의례적 효과를 기대했다면, 이를 봉헌적 성격을 지닌 매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례의 과정에서 두개골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을 가능성과, 의례적 효력을 지닌 존재로 전환되어 의례적 효과를 위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에릭센의 신체 유물 변형 과정에서 두 번째, 사람다움을 변형하여 다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례적 효력을 지닌 매납물로 전환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두개골들은 의례적 효력을 지닌 매납물로의 전환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악골·경추 등 머리의 다른 부위가 결실되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매장된 시신에서, 다른 부위를 제외한 두개골만이 선별·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동-(보관)-수변유구 내 매납의, 일련의 공통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의 분할·분리와 사람다움의 변형 및 의례적 매납물로의 전환 후, 수로·연못·우물에 다시 매납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연쇄와 의미·관계의 변환을 종합하여 수변유적의

28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2008), 211~241쪽; 주윤지, 「삼국·통일신라시대 경주 왕경 지역 우물 의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4); 문다솔·양은경, 「경주지역 통일신라시대 우물 폐기 의례의 양상과 성격」, 『고고광장』 33(2023), 161~190쪽; 박초롱, 「백제 수변 제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117(2025), 209~239쪽.

‘두개골의 봉헌적 매납’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체의 파편화 측면에서 두개골의 봉헌적 매납과 대책을 이루는 방식의 의례도 확인된다. 경주박물관부지 내 우물에서 아동 한 개체의 전신이 출토된 바 있고,²⁹ 경주 동궁과 월지의 3호 우물에서는 4개체의 인골 전신이 확인되었는데, 우물 내부 2~7m 깊이에 넓게 분포하며, 6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³⁰ 이 다섯 개체는 신체의 모든 부위가 해부학적 연결성을 가지고 출토된 점에서, 두개골의 봉헌적 매납과 달리 신체의 파편화가 전제되지 않았다. 두개골만 선별된 것과 반대 개념의 ‘전신 봉헌’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 두개골의 매납이 대상화된 ‘신체 유물’을 봉납하는 데 반해 전신 봉헌은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상 살아있는 인간을 봉납하는 인신희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인간 신체의 봉헌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의례의 성격, 목적, 지향, 사건과 담론의 생성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달랐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것은 아니나, 5세기 대 일부 신라 고분에서 두개골을 부장한 사례가 알려졌다. 이들은 보존상태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절단된 머리를 주곽 혹은 부곽 내에 부장한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

1) 경산 조영 EI-2호분³¹(〈그림3〉-①)

경산 조영동 고분군의 EI-2호 주곽에서는, 성별 불명의 아동 피장자 머리 옆에 성인의 두개골이 부장되었다. 이 개체는 두개골만 존재하고 다른 부위는 일절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조사 당시부터 머리만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29 국립경주박물관,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02).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 발굴조사보고서 3』(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31 영남대학교박물관,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造永 EI 號墳』(경산: 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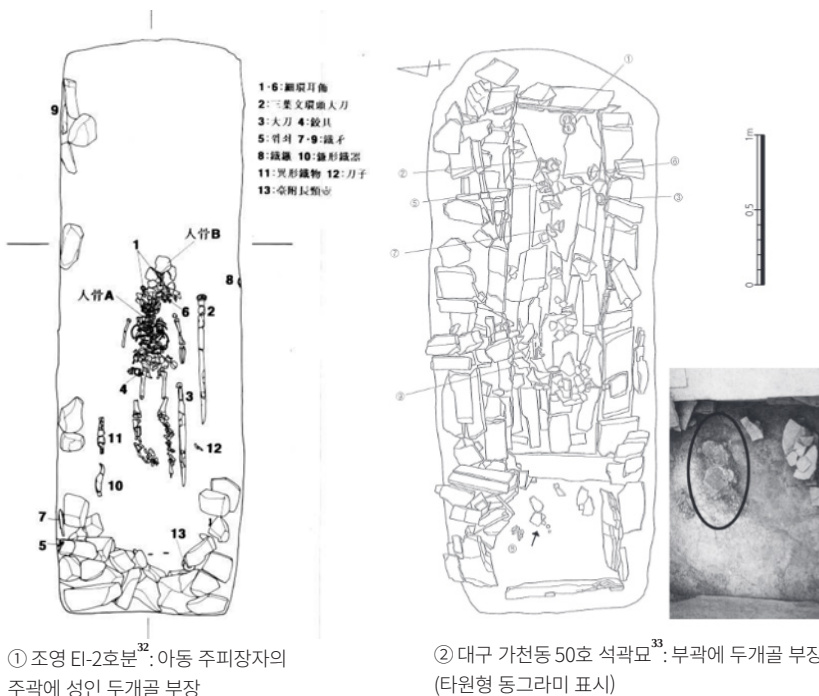


그림3-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 사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절단흔이 남아 있는 경추 등 외상의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쪽 측두골 옆에서 금동제 세환이식이 확인되는 점에서, 매납 당시 귀, 즉 연조직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쪽 측두골 옆에서 이식이 출토되는 사례는 여러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고, 착장 정황을 알려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개골은 머리가 분리되고 연조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위치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대구 가천동 50호 석곽묘³⁴(〈그림3〉-②)

대구 가천동 고분군의 50호 석곽묘에서도 부곽에서 성별 불명 성인의 두개골

32 영남대학교박물관, 위의 책(2000).

33 신석원, 「대구 가천동유적 출토 인골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2018), 137~163쪽.

34 신석원, 위의 논문(2018).

파편이 확인된다. 여기에서도 다른 부위는 일체 출토하지 않았으며, 50호 석곽 묘의 부곽은 성인이 매장되기 불가능한 크기이다.³⁵ 이러한 점에서 분리된 성인의 두개골이 매장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두개골의 존재만 확인되었을 뿐, 보존 상태의 한계로 인해 체질적 분석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경추의 절단 등 외상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두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 고분의 순장 양상과 형식상으로 크게 다르다. 비록 순장자는 염을 하지 않는 등 주피장자와 크게 다르게 처리되지만,³⁶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월성에서 확인되는 인주(人柱) 등 다른 종류의 신라 인신희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피장자의 장례에 다른 인간의 신체가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순장이나 인신희생과 완전히 분리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신 순장, 인체 부분유해 부장, 두개골 중심 부장은 주피장자와 다른 인간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를 장례 공간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속선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전신이 아니라 머리만을 선택하여 주곽 또는 부곽에 편입한 행위에는 신체의 분리, 특정 부위의 선택과 이동이라는 추가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순장으로 환원하기보다, 순장·희생의 맥락 속에서 머리의 선택성이 갖는 의미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영 EI-2호분에서는 아동 주피장자의 머리 곁에 성인의 두개골이 놓이고 양쪽 측두부에서 세환이식이 확인된다. 이는 머리 또는 두개골이 별도로 선택되어 주곽에 편입되었음을 비교적 강하게 시사한다. 동시에 세환이식은 두개골 주인의 착장 상태와 사회적 정체성이 일부 유지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두개골 주인의 사람다움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존 사회적 표지가 일부 유지된 상태에서 그 머리가 주피장자의 장례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면서 관계적 위치와 사람다움의 범위가 축소·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천동 50호는 부곽에서 성인의 두개골 파편이 확인되었지만, 유해의 보존 상태와 분석 수준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머리만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35 신석원, 위의 논문(2018).

36 김용성, 「新羅 高塚의 殉葬」, 『古文化』 59(2002), 64~87쪽.

확정 사례라기보다 인체 부분유해가 부곽에 편입된 잠정적 사례로 본다.

이러한 신라 고분의 신체처리는 주피장자의 권력과 위계를 표현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누가 사람이고 아닌가’를 완전히 구분한 행위로 보기보다, 주피장자와 종속된 존재 사이에서 사람다움의 지위와 범위를 차등화한 행위로 해석하고자 한다.

3. 강원지역 도치옹관묘의 두개골 매장

독립적인 매장에서 머리만 확인되는 인골의 경우 전사자 등 특정한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두개골만 회수하여 장례 지내는 사례가 원삼국~삼국시대 강원지역에서 점차 다수가 확인되고 있어, 더 이상 특수한 사건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³⁷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부에 1~2개체분의 두개골을 매납하고 경질무문토기, 장란형토기 등 옹관을 수혈에 거꾸로 세운 형태의 매장 방법을 ‘도치옹관묘’로 칭하기도 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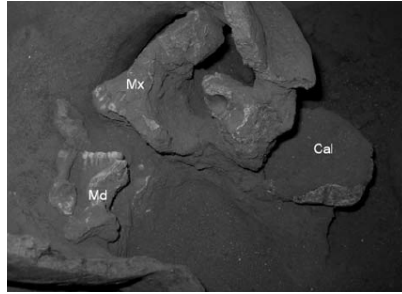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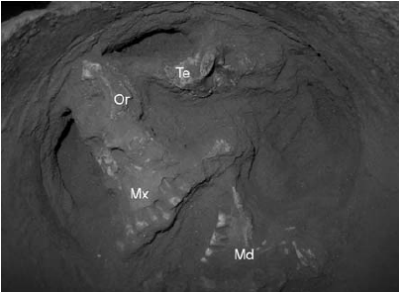
1) 정선 아우라지 옹관묘³⁹(〈그림4〉-①)

정선 아우라지 유적의 적석총 남서쪽 인근에 매납된 경질무문토기 호 내부에서 한 개체의 두개골이 출토하였다. 옹관은 평면 타원형의 수혈을 파고 옹관을 비스듬히 안치한 형태이다. 두개골은 연결 상태의 상·하악이 확인되었으며 경추 등 다른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성별은 판단이 어려웠으며 치아 마모도에서 35~40세의 성인으로 추정되었다. 아우라지 옹관묘는 당시 유사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전사계급의 머리를 탈취한 후 따로 매장하였을 가능성,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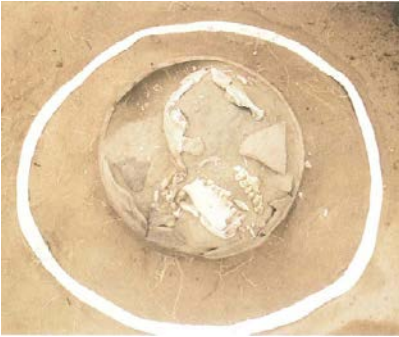
37 본고에는 2~3개 사례만이 소개되었지만, 최근 춘천 읍문리에서도 도치옹관의 두개골 매장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조사되어 보고 및 분석 결과가 기대된다.

38 박중국,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2012), 41~88쪽.

39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내 2차 발굴 조사보고서』(춘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① 정선 아우라지 옹관묘⁴⁰ (좌: 상부의 상악골과 하악골 노출 상태, 우: 두개골 일부 수습 후 상태)



② 원주 법천리 27호 옹관묘⁴¹ [좌: 상부 두개골 노출 상태, 우: 상·하부 두개골 노출 상태(상부 개체 일부 수습)]

그림4-영서 지역의 도치옹관묘 사례

은 머리뼈를 따로 추려 이차장으로 간추려 묻어야 할 특수한 사정 내지는 장송 의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예외적 상황의 반영으로 해석되었다.⁴²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옹관묘는 아우라지 적석총 인근에 설치되어 양자 간의 관련성이 상정된다.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 중상류의 적석총은 화장

40 김명주 외, 앞의 논문(2010).

41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02).

42 김명주·김이석·오창석·이상준·복기대·이양수·윤석인·이나리·신동훈, 「정선 아우라지 출토 원삼국시대 옹관묘에서 확인된 사람 머리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보고」, 『해부·생물 인류학』 23-4(2010), 169~175쪽.

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⁴³ 그러한바 도치옹관묘의 두개골 회수와 적석총의 화장 간에 어떤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개골 회수와 화장의 관련성은, 다음 절에서 더 다룰 것이다.

2) 원주 법천리 옹관묘⁴⁴(〈그림4〉-②)

법천리 27호 옹관에서는 두 개체분의 두개골이 출토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약간 더 복잡하다. 옹관 상부의 1호 인골은 두개골, 하악골에 더해 1~3경추, 1~2흉추, 좌측 제1 늑골이 확인된 남성 두개골이다. 이 개체는 완전히 육탈되기 전의 시신을 매납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머리를 취하기 위해 육탈 이전의 사람을 가슴 부위인 2번 흉추에서 절단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4~7번 경추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육탈 이후 두개골을 취하되, 목뼈와 등뼈 일부까지 머리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⁴⁵ 반면 옹관 하부의 2호 인골은 하악골 등 여타 부위가 없이 두개골만이 매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어디까지를 머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합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육탈된 인골에서 머리를 선별하는 작업에서 해부학적 중요성과 일관성은 중요 사항이 아니었으며, ‘머리와 턱 및 그와 연결된 뼈(head-package)’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재구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디까지를 머리로 볼 것인가, 나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모이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일관적, 규범적 합의는 없었던 것 같다.

한편 법천리 유적에서는 3기의 옹관묘가 더 확인되는데 모두 합구식이고 이와 같은 형태는 없다. 다만 16호 옹관묘에서는 두개골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세골장 유구”로 보고된 유구에서는 얇은 토광 내에 육탈된 인골이 안치된 점,⁴⁶ 그리고 27호 옹관묘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장자를 육탈시키고 특정 부위를 선

43 이민규, 「한반도 중부지역의 적석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3); 하대룡, 「원삼국~백제 무덤에서의 화장과 기념」,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자료집』(2025), 35~46쪽.

44 국립중앙박물관, 『법천리 I』(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45 흉추 일부를 목뼈로 인지하고 수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문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두개골의 선별에서 해부학적 정확성은 핵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46 이 유구의 상면에서는 다수의 치아가 흩어져 확인된다고 하며, 그러한바 세골의 과정에서 치아를 받치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별, 회수, 재매납하는 일련의 의례적 과정이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 강릉 초당동 삼국시대 옹관묘 7호⁴⁷(〈그림5〉)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강릉 초당동 도시계획시설(소로3-171호선) 개설부지 내 유적에서는 신라 석곽묘 12기 등과 함께 7기의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다른 6기의 옹관묘는 모두 장란형토기를 주옹으로 한 합구식이지만, 옹관묘 7호는 묘광 내에서 파수부옹이 도치된 상태로 단옹식이며, 내부에서는 두개골과 일부 상지골이 출토하였다. 이 인골은 성별 불명의 10대 후반 개체로 동정되었다. 출토 부위는 상·하악골과 경추편 5점, 견갑골·쇄골 소편, 상완골두편 등이다. 조사단이 판단한 바와 같이, 묘광 내에 피장자를 앉은 자세로 안치한 후 피장자의 머리를 파수부옹을 덮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퇴골, 경골 등 대형의 사지뼈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도치옹관의 형태로 머리만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상정된다. 경추와 쇄골 등 일부 몸체의 뼈가 함께 출토된 것은 차별적 보존의 결과가 아니라, 법천리 27호의 1호 인골과 같이 두개골에 인접한 뼈 일부도 머리의 일부로 간주한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로 두 경우는 출토 부위도 상당히 유사하다. 만약 본고의 판단이 타당하다면, 영동지역에서 육탈 후 머리를 선별하여 별도 매장하는 도치옹관의 전통이 신라 진출 이후까지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치옹관의 두개골 매납은 시신의 일차장 이후 머리(및 목뼈 등 상지 일부)를 선별, 수습하여 보관하고, 용기에 봉안하는 일련의 작업 연쇄가 반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 정황은 이 모두를 처벌, 전리품의 획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도치옹관묘의 두개골 매납은 ‘머리만 남았다’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반복된 과정과 작업연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선 아우라지, 원주 법천리, 강릉 초당동 사례를 종합하면, (1) 일차적 매장, (2) 일정 시간 경과 후(즉 육탈 이후) 두개골(및 인접부 등 머리로 인식한 부위)의 선별 수습, (3) 세척, 정리, 일시 보관을 포함한 관리, (4) 경질무문토기, 장

47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초당동 유적 VIII: 강릉 초당동 도시계획시설(소로3-171호선)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발굴보고서』(춘천: 강원문화재연구소, 2023).

란형토기, 파수부용 등 특정 용기의 선택, (5) 수혈 굴착 후 도치 매납, 폐쇄라는 일련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법천리 27호처럼 머리의 경계가 두개골에 엄격히 고정되지 않은(두개골+경추+흉추 일부까지 포함) 점은, 두개골에 대한 해부학적 일관성보다 머리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유동적이었고 ‘머리를 선택·선별한다’는 의례적 절차가 더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쇄의 과정에서 두개골은 죽은 사람의 전신은 아니지만 부분을 통해 전체를 대표하며, 가분적 신체이자 이동 가능한 부분으로서 신체-유물 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프먼이 강조하듯, 인체는 특정 조건에서 가분적이며, 분할되면 그 구성요소는 이동 가능(mobile)해지고, 이동·재배치는 죽음의 경계 너머에서 사회적 관계의 연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⁴⁸ 도치용관은 머리의 선별-이동-매납을 통해 ① 죽은 자의 ‘정체성(머리)’을 추출하여 ② 묘역 등 특정 장소에 고정하고 ③ 그러한 의례 과정을 통해 살아 있는 자들 사이의 관계(혈연, 집단 정체성, 기억)를 재구성하는 장치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강릉 초당동 삼국시대 웅관묘 7호⁴⁹(좌: 출토 유구, 우: 출토 인골)

그림5-강릉 초당동 추정 도치용관묘 사례

⁴⁸ J. Chapman, *op. cit.* (2000).

⁴⁹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3).

따라서 에릭센의 구분 관점에서 보면, 도치옹관의 두개골 매납은 (3) 비인간 존재로의 격하보다는, (1) 사람다움의 강화 또는 (2) 사람다움의 전환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앞서 본 수변유구의 두개골 매납처럼 봉헌물로 “전환”되는 사례와 달리, 도치옹관의 두개골은 장례 의례 내부에서 반복되는, 넓은 틀에서 매장 규범(육탈-머리 선택-토기 내 매납)을 갖고 있어, 머리를 조상화(ancestralization)하거나, 기억·관계의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1) 사람다움의 특정 부분을 증폭·강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및 동물)이 연쇄적 변형 과정을 통해 머리인 것(head-thing)으로 재가공되어 강한 효력과 생동성을 지닌 대상이 되지만, 잠재적으로 더 이상 사회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에릭센의 논의처럼, 도치옹관의 머리 역시 사람과 물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2) 사람다움의 전환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치옹관묘는 (1) 사람다움의 강화를 목표로 하되, 그 강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신체 유물로 전환(2) 사람다움의 전환해 매장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의 부분 화장

부분 화장(partial cremation)은 한국고고학에서는 낯선 장법이지만, 유럽 선사 시대와 로마고고학에서는 매장과 화장 사이의 중간적 장법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⁵⁰ 삼국시대를 전후해서 부분 화장이 명백히 확인된 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춘천 신매리 석실 단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두개골이 선별적으로 화장되지 않고

50 K. Rebay-Salisbury, “Neither Fish nor Fowl: Burial Practices between Inhumation and Cremation,” in Z. L. Devlin & E. J. Graham(eds.), *Death Embodied: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the Corpse*(Oxford: Oxbow, 2015), pp. 18~40; J. I. McKinley, “In the Heat of the Pyre: Efficiency of Oxidation in Romano-British Cremations—Did It Really Matter?” in C. W. Schmidt & S. A. Symes(eds.), *The Analysis of Burned Human Remains*(London: Academic Press, 2008), pp. 163~184; E. J. Graham, “From Fragments to Ancestors: Redefining the Role of Os Resectum in Rituals of Purification and Commemoration in Republican Rome,” in M. Carroll & J. Rempel(eds.), *Living through the Dead: Burial and Commemoration in the Classical World*(Oxford: Oxbow, 2011), pp. 91~109.



신매리 석실의 인골 출토 정황. 인골의 화장 상태

그림6-신매리 석실의 부분화장

다른 부위는 모두 화장된 점에서, 두개골 선별·관리를 동반하여 주목된다. 앞서 본 다른 사례와 달리, 두개골 이외 전신이 매장된 점에서 크게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두개골이 별도로 선택되고 신체의 다른 부위와 차별적으로 다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⁵¹⁾(〈그림6〉)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2019년 조사한 신매리 석실은 축조 방법과 형태 등 여러 특징에서 고구려계 석실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두향을 입구부와 반대로 두고 안치된 두 개체가 확인되었다. 입구부에서 보았을 때 왼쪽의 개체(1호 인골: 30대 이상 남성)는 전신이 다 보존되었지만, 오른쪽 개체(2호 인골: 성별, 연령 불

51 본 부분의 내용은 신매리 석실의 사체 처리 방식을 다룬 필자의 기존 논고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하대룡,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 피장자의 사체 처리방식 검토」, 『고고학』 20-2(2021), 43~66쪽.

명)는 두개골만이 잔존하였다. 1호 인골은 일견 양와신전장의 정연한 모습으로 출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각 부위가 해부학적 정위치에서 벗어나 있어, 완전히 분리된 인골이 의도적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거기에 더해 목 아래의 부위, 즉 두개골과 하악골, 제1 경추 등 두부(頭部)를 제외한 부위만 선택적으로 화장되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화장골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피열 당시 연조직이 잔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화장되어 현재의 상태로 안치되었다면, 1호 인골의 장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피장자의 사망 이후, 특정한 장소에서 육탈의 과정을 거친다. 1호 인골의 경우 적어도 두개골 부위에서 동물의 저작흔 등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일정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육탈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육탈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만약 현실 내부였다면 화장을 위한 습골 당시에 놓친 손뼈, 발뼈 등 작은 부위의 뼈들이 거기에 잔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어도 현실 내부는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육탈의 완료 이후, 수습하여 몸체는 화장하되 머리 부위(두개골, 하악골, 제1 경추)는 화장하지 않는다. 1호 인골은 이처럼 머리와 몸체가 서로 다른 사체 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문제는 머리와 몸체가 언제부터 다르게 다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육탈 과정을 함께 거쳤는지도 알 수 없으며, 혹은 사망 당시부터 매장 시점까지 다른 장소에서 보관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셋째, 화장골을 수습한다. 석실 내에서 수습된 인골 중에 손뼈, 발뼈와 같이 작은 부위는 극소수에 불과한 점에서, 육탈 완료 이후 수습단계, 또는 화장골의 수습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지 않다. 늑골 또한 출토율이 낮은 점에서 중요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팔뼈, 다리뼈 등 몸체를 이루는 큰 뼈들은 거의 전부 수습하였다. 또한 안치 장소에서 목탄의 흔적이나 뼈에 묻은 목탄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수습 이후 뼈가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 등의 의례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확인된 석촌동 유적 화장골의 경우, 화장골이 출토하는 주변에서 함께 목탄과 소토가 다량 확인되고, 화장골 자체에도 그러한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매리 석실의 인골과 그 주변에서 목탄이나 소토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화장 이후 화

장 관련 물질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화장되지 않은 머리 부위와 화장된 몸체 부위를 석실 안에 재배치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뼈를 쌓아 두는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두향을 북쪽으로 한 양와신전장의 자세로 인체 형상의 재구성을 의도하여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완골, 골반, 대퇴골, 경골 등 큰 뼈는 좌우 혹은 전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사람의 형상대로 배치하였고, 요골, 척골, 비골 등 작고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부위는 피장자의 오른쪽 발 바깥에 해당하는 위치에 가지런히 모아 두었다. 이 단계에서 관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정, 관고리가 출토되지 않았고, 관대도 구축되지 않았으며, 수습 당시 인골과 시상석 사이에서 일체의 유기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1호 인골의 배치 영역 모습 이 다소 부정형을 띠는 점에서, 목관 등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현실 내에 그대로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아마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2호 인골을 1호 인골의 우측에 안치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2호 인골은 화장되지 않은 두개골을 제외하면 다른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소량의 화장골분이 확인되어, 1호 인골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두 인골이 배치된 시간적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교란된 묘도에서 재굴착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을 연도의 재개방, 즉 추가장의 흔적으로 본다면, 동시장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연쇄 결과 현재의 신매리 석실의 현실 상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머리와 몸체가 서로 다르게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① 피장자의 죽음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 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상황론), 또는 ② 특정 전통의 장례 방식이 고구려 묘제와 결합하였을 가능성(일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장례의 연원을 추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왜 두개골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졌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신매리 석실의 핵심은 화장 그 자체보다는, 화장이라는 ‘가공’을 일부에만 적용하고 다른 일부에는 배제했다는 점에 있다. 화장은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시

신을 ‘다른 성격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변형 과정이며,⁵² 화장을 통해 신체를 화장골, 즉 보통의 뼈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뼈를 태워 변형시켜 파편화, 분절화하는 변형이며 이런 점에서 화장은 신체를 가분적·침투적 상태로 재규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⁵³ 그런데, 부분화장은 그 변화를 전신에 균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 편중시킨 선택이다.

이 점에서, 신매리 1호 인골에서 두개골만 화장을 회피한 선택은 우연한 결과라기보다, 머리를 별도의 범주로 다루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머리는 개인의 정체성과 행위성(agency)이 집중되는 부위로 이해되며, 따라서 머리는 본고에서 살펴본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부위로 작동하기 용이하다. 신매리 1호 인골의 경우, 몸체는 화장을 통해 화장골의 성질을 부여받는 반면, 머리는 그러한 변형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표상과 정체성을 유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에릭센의 구분을 빌리면, 머리는 죽은 이의 사람다움을 “강화”하는 방향(1)으로, 몸체는 불을 통해 다른 물질적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2)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개골과 화장골을 현실 내부에서 다시 인체 형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화장을 통해 사람다움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형된 신체를 다시 조합해 다른 형태로 사람다움이 재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① 몸체를 화장하여 관계적 잠재력(가분성/침투성)을 얻되, ② 머리는 화장하지 않아 개인의 정체성과 행위성은 유지하고, ③ 최종적으로는 두 요소를 결합해 피장자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의미의 전환을 갖는 장례 방식인 만큼, 신매리의 부분화장은 예외적, 특이적 상황이 아니라 정교한 의례적 설계의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52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125(2022), 761~791쪽.

53 H. Williams, J. I. Cerezo-Román, and A. Wessman, “Introduction: Archaeologies of Cremation,” in J. I. Cerezo-Román, A. Wessman, and H. Williams(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1~24.

IV. 두개골 선별·매납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논의된 두개골의 선별·관리는,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된다는 특정하고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분리-(보관)-이동-재맥락화로 이어지는 연속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논의를 포함하여, 기존 논의는 머리와 신체가 분리된 상태라는 특정 정황에만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신체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과 이해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신체가 ‘불가분의 개인(individual)’으로만 전제되지 않고, 관계와 물질의 흐름 속에서 가분적이고 침투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분의 개인 또는 유교적 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분할된 신체는 처벌, 징벌의 결과 등 비정상적 상태로 해석되기 쉽다. 반면 C. 파울러(C. Fowler)가 논한 가분적 개인(dividual)과 사람다움(personhood) 논의는 사람이 관계에 분포하며, 신체가 물질적으로도 분할, 교환, 침투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채프먼 역시 인체의 분할 가능성(divisibility)과 분할 이후 획득하게 되는 구성요소의 이동성(mobility)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두개골과 같은 특정 부위의 선별, 이동, 재배치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환유, synecdoche)이 되어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가 연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두개골의 선별·관리(curation)는 단순한 수습-매납의 과정이 아니라 피장자의 유해가 육탈, 수습, 선별·분리, 안치되며 이후 다시 매장되는 변환의 작업연쇄이며, 이 과정 자체가 의례의 연속이자 의례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의례의 연쇄는 매장의례의 확장이며 기억과 관계 재구성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두개골 선별·관리의 작업연쇄를 정리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관점에서 두개골 분리는 ‘온전한 몸의 절단’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관계(혈연, 사회적 위계, 집단 정체성, 장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신체를 재편하는 방법이다. 머리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뼈가 사람이면 서도 물건과 같이 취급, 이동 가능한 상태로 변환되도록 만드는데, 이런 대상화(objectification)가 모두 비인격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과 물건의 경계

표1-두개골 선별·관리의 작업연쇄

1. 일차적 매장	일차장 이후 육탈, 해체의 과정. 경우에 따라서는 의례적 절단 수반
2. 머리의 분리	세척, 건조, 가공(치아의 제거 등)
3. 관리 및 보관	특정 장소, 용기, 구역에 보관. 의례의 성격과 과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4. 의례적 활용	의례의 수행을 위해 이동, 사용
5. 재맥락화	최종 매납, 봉헌, 부장 ① 수변 봉헌: 우물·수로·연못 등에 봉헌 ② 매장주체부 내 부장: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 ③ 매장주체부 내 매장: 도치옹관묘 내 매장 ④ 부분화장과 결합: 신매리 석실의 재안치
6. 폐쇄·봉인	의례의 종료, 매납, 매장주체부의 폐쇄

를 가로지르는 상태가, 두개골의 의례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부분이면서도 전체를 대표하고, 개인이면서도 조상을 호출하는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개골의 선별과 관리는 두개골을 단순한 죽음의 징표가 아니라 의례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표1>의 재맥락화는 최종적으로 두개골이 놓이는 자리(수변, 무덤의 부장부, 도치옹관, 석실 내 인체 재구성 등)를 통해, 두개골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두개골은 봉헌의 대상물, 계보, 위계, 기억의 매개가 될 수 있다. 폐쇄·봉인의 단계에서 두개골은 매납되지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폐기와는 물론 다르며 무덤, 묘역, 의례적 공간으로 장소화(place-making)된다.

주의할 점은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는 것’이라는 행위는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맥락과 최종 안치 장소에 따라 사람다움을 더 강화하거나, 사람다움의 성격을 바꾸거나, 사람다움을 없애려는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개골의 차별적 처리를 네 종류의 사례군과 형태로 유형화하고자 시도하였고, 각각의 사례군은 두개골의 분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가 모두 달랐다. 에릭센의 구분에 기초하여, 본고의 사례들이 두개골의 선별·관리와 그에 수반하는 작업연쇄를 통해 변화시킨 사람다움의 방향성을 유형화하면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고에서 제시한 유지·강화, 변형·전환, 제거·박탈의 세 방향은 각 사례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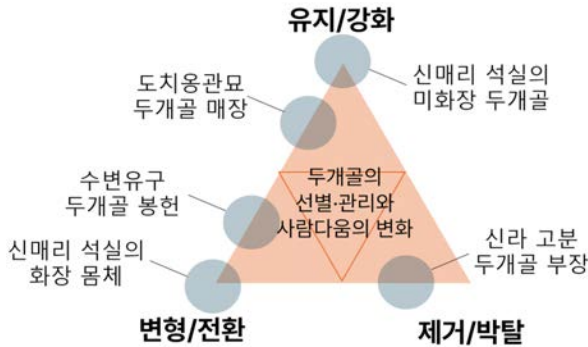


그림7-두개골의 선별·관리와 사람다움 변화의 해석적 방향

*단, 이 도표는 각 사례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허용하는 해석의 상대적 방향과 중첩 가능성을 표시한 모식도이다.

나의 유형에 고정하기 위한 배타적 분류가 아니다. 하나의 사례에서도 기존 정체성의 일부가 유지되는 동시에 관계적 위치가 전환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7>은 각 사례가 지닌 복수의 가능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수변유구의 두개골 매납은 두개골이 의례적 매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변형·전환의 방향에 가깝다. 다만 분석된 세 사례가 성인 남성이라는 잠정적인 패턴은 두개골 주인의 일부 속성이 중요했을 가능성을 남기므로 유지·강화의 방향에도 일부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은 주피장자의 장례를 구성하는 신체-유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변형·전환과 사회적 지위의 약화 사이에 위치한다. 조영 EI-2호분의 세환이식은 기존 정체성의 일부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제거·박탈의 방향에만 배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두개골의 분리와 그에 수반하여 의도된 사람다움의 변화는 반드시 한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측면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든 사례들은 단순히 ‘두개골만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진 다’ 이상의 의미를 넘어 두개골을 매개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특정한 장소에 고정하는 의례적 기술로 해석될 수 있다. 두개골의 분리, 이동, 관리, 재매납을 기존의 해석처럼 예외적 사건의 부산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 설명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두개골의 선별·관리·매납이 환유적 매개를 통해 사람다움과 사회적 관계, 장소성을 재설계하는 방법이라 보았다. 이는 앞서 본 수변유구 두개골의 봉헌적 매납,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 도치용관 내 매장, 석실 내 신체 재구성 등, 두개골이라는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신체-유물로 전환되었다.

V. 결론

본고는 이른바 ‘특이’ 정황을 보이는 두개골 출토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불가분의 개인’이라는 전제를 벗어나, 가분성과 침투성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국시대 전후에 확인되는 두개골의 분리·이동·선별·재매납은 전쟁·처벌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론만으로 두개골의 선택적 잔존과 최종 배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를 일별하고 사람다움을 다시 구성하는 의례적 과정, 즉 작업연쇄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두개골만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목적과 의도, 결과는 서로 달랐다. 수변유구의 두개골 봉헌 매납은 두개골을 의례적 효력을 지닌 매납물로 전환하여 의례적 봉헌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신라 고분의 두개골 부장은 장례 공간 내부에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의 경계를 나누어 위계와 지배/복속의 비대칭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도치용관묘의 두개골 매장은 반복되는 규범적 절차를 통해 머리를 조상화와 기억의 매개로 강화하는 성격이 크며, 신매리 석실의 부분화장은 화장이라는 강력한 변형을 몸체에만 적용하는 가운데 머리는 예외로 뒹으로써, 정체성(머리)과 변형(몸체)을 분화한 뒤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람다움을 구성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두개골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환유적 매개로 기능하면서, 매납되는 맥락과 의례적 절차의 차이에 따라 강화, 전환, 격하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다움이 다시 설정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관성적으로 고대사회의 장례·의례를 불가분의 개인 중심으로

보아 온 것에 대한 반례로 제시될 수 있다. 두개골의 선택적 취급은 반드시 특이
정황의 반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거나 재설정하기 위해 신체
를 분할하고 이동시키는 의례적 기술일 수 있다. 본고가 제시한 두개골 선별·관
리의 관점은, 삼국시대의 장례·의례가 개인의 완전성을 보존하는 방식만으로 구
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신체의 가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음을 보여 준다.

본고의 비교는 서로 다른 정치체와 시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 신체관을 직
접 복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두개골이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표하고, 분
리된 뒤 이동하여 새로운 사람·사물·장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실천적 가능
성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사례 수와 자료의 보
존·분석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봉헌적 매납, 사람다움의 전환·약화 등의
해석은 향후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가설이다.

참고문헌

1. 논저

-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내 2차 발굴 조사보고서』, 춘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초당동 유적 VIII: 강릉 초당동 도시계획시설(소로3-171호선)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발굴보고서』, 춘천: 강원문화재연구소, 2023.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서부동 93번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부지 유적』, 경주: 계림문화재연구원, 2018.
-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7차 발굴조사』, 공주: 공주대학교박물관, 2018.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東宮과 月池: 발굴조사보고서 3』,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 국립경주박물관, 『國立慶州博物館敷地内 發掘調査報告書: 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02.
- 국립중앙박물관, 『법천리 I』,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 권오영, 「고대 영남 지방의 순장」, 『한국고대사논총』 4, 1992, 5~59쪽.
-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2008, 211~241쪽.
- 김명주·김이석·오창석·이상준·복기대·이양수·윤석인·이나리·신동훈, 「정선 아우라지 출토 원삼국시대 옹관묘에서 확인된 사람 머리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보고」, 『해부·생물인류학』 23-4, 2010, 169~175쪽.
- 김용성, 「新羅 高塚의 殉葬」, 『古文化』 59, 2002, 64~87쪽.
- 김재현, 「東海市 湫巖洞 B地區古墳群의 埋葬例」, 『석당논총』 20, 1994, 97~136쪽.
- 김현석·우하영·이하얀, 「집골로 본 추가장 과정에 대한 예찰: 경주 동천동 373번지 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7, 2020, 209~230쪽.
- 김현우, 「나말여초기 전남 동부지역 산성의 점유양상과 지방호족」, 『한국고고학보』 108, 2018, 84~119쪽.
- 문다솔·양은경, 「경주지역 통일신라시대 우물 폐기 의례의 양상과 성격」, 『고고광장』 33, 2023, 161~190쪽.
- 박중국,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1, 2012, 41~88쪽.
- 박초롱, 「백제 수변 제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117, 2025, 209~239쪽.
- 백제문화재연구원,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부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0.

- 신석원, 「대구 가천동유적 출토 인골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 2018, 137~163쪽.
- 영남대학교박물관,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造永 EI 號墳』, 경산: 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 우정연,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125, 2022, 761~791쪽.
- 이민규, 「한반도 중부지역의 적석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이준정·하대룡·박순영·우은진·이청규·김대환·김종일·한영희,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8, 2008, 128~155쪽.
- 주윤지, 「삼국~통일신라시대 경주 왕경 지역 우물 의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크리스 파울러(저), 우정연(역), 『고고학과 인류학을 통해 본 사람다움』, 서울: 서경문화사, 2018.
- 하대룡, 「춘천 신매리 고구려 석실 피장자의 사체 처리방식 검토」, 『고고학』 20-2, 2021, 43~66쪽.
- 하대룡, 「원삼국~백제 무덤에서의 화장과 기념」,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자료집』, 2025, 35~46쪽.
- 하대룡·이준정,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출토 백제시대 인골에 대하여」, 『부여 쌍북리 602-10번지 유적』, 백제문화재연구원, 2010, 198~212쪽.
- 화랑문화재연구원, 『경주 노서동 135-4번지 유적』, 경주: 화랑문화재연구원, 2017.
- Brück, J., "Material Metaphors: The Relation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Early Bronze Age Burials in Ireland and Britain,"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 4, No. 3, 2004, pp. 307~333.
- Chapman, J.,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 London: Routledge, 2000.
- Eriksen, M. H., "'Body-Objects' and Personhood in the Iron and Viking Ages: Processing, Curating, and Depositing Skulls in Domestic Space," *World Archaeology*, Vol. 52, No. 1, 2020, pp. 103~119.
- Fowler, C., "Relational Personhood Revisited,"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26, No. 3, 2016, pp. 397~412.
- Graham, E. J., "From Fragments to Ancestors: Re-defining the Role of *Os Resectum* in Rituals of Purification and Commemoration in Republican Rome," in M. Carroll & J. Rempel(eds.), *Living through the Dead: Burial and Commemoration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bow, 2011, pp. 91~109.

- McKinley, J. I., "In the Heat of the Pyre: Efficiency of Oxidation in Romano-British Cremations—Did It Really Matter?" in C. W. Schmidt & S. A. Symes(eds.), *The Analysis of Burned Human Remains*, London: Academic Press, 2008, pp. 163~184.
- Rebay-Salisbury, K., "Neither Fish nor Fowl: Burial Practices between Inhumation and Cremation," in Z. L. Devlin & E. J. Graham(eds.), *Death Embodied: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the Corpse*, Oxford: Oxbow, 2015, pp. 18~40.
- Williams, H., Cerezo-Román, J. I., and Wessman, A., "Introduction: Archaeologies of Cremation," in J. I. Cerezo-Román, A. Wessman, and H. Williams(eds.), *Cremation and the Archaeology of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1~24.

References

Books and Journal Articles

- Baekje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Archaeological Site at 602-10 Ssangbuk-ri, Buyeo*. Buyeo: Baekje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0.
- Fowler, C.,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An Anthropological Approach*, Woo, Jungyoun(trans.), Seoul: Seokyeong Cultural Press, 2018.
-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Jeongseon Auraji Site: Excavation Report on the Second Investigation within the Jeongseon Auraji Tourist Complex Development Area*, Chuncheon: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angneung Chodang-dong Site VIII: Excavation Report on the Archaeological Site within the Construction Area of Urban Planning Road 3-171, Chodang-dong, Gangneung*, Chuncheon: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23.
- Gyeongju National Museum, *Excavation Report within the Site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The Art Museum Site and Connecting Passage Site*, Gyeongju: Gyeongju National Museum, 2002.
-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yeongju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Excavation Report 3*, Gyeongju: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
- Gyerim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Archaeological Site at 93 Seobu-dong, Gyeongju: Site of the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yeongju: Gyerim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9.
- Ha, Daeryong, "An Exceptional Case of the Combination of Secondary Burial and Cremation in a Goguryeo Stone Chamber Tomb,"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Vol. 20, No. 2, 2021, pp. 43-66.
- Ha, Daeryong, "Cremation and Commemoration in Tombs of the Proto-Three Kingdoms and Baekje Periods," *Proceedings of the 68th National History Conference*, 2025, pp. 35-46.
- Ha, Daeryong & Lee, Junejeong, "Human Skeletal Remains of the Baekje Period Excavated from the Archaeological Site at 602-10 Ssangbuk-ri, Buyeo," in *Archaeological Site at 602-10 Ssangbuk-ri, Buyeo*, Buyeo: Baekje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0, pp. 198-212.
- Hwar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Archaeological Site at 135-4 Noseo-dong, Gyeongju*, Gyeongju: Hwar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7.
- Joo, Yunji, "A Study on Well Rituals in the Gyeongju Capital Area during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s," M. 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
- Kim, Hunsuk, Woo, Hayoung, and Lee, Hayan, "Study of Additional Burial Process Based on Bone Collecting: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ju Dongchoen-dong 373 Site," *Silla Munhwa*, Vol. 57, 2020, pp. 209-230.
- Kim, Hyunwoo, "Occupation Pattern of the Fortresses of the Eastern Jeonnam Region and the Powerful Local Families of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Hanguk Kogo-Hakbo*, Vol. 108, 2018, pp. 84-119.
- Kim, Jaehyun, "Burial Practices in the Ancient Tombs of District B, Chueam-dong, Donghae," *Seokdang Nonchong*, Vol. 20, 1994, pp. 97-136.

- Kim, Myeungju, Kim, Yisuk, Oh, Changseok, Lee, Sangjun, Bok, Gidae, Yi, Yangsu, Youn, Sukin, Lee, Nali, and Shin, Donghoon, "Anthropological Study on Ancient Human Skull and Teeth Discovered from Urn Coffin of Proto: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Vol. 23, No. 4, 2010, pp. 169-175.
- Kim, Yongseong, "The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in Silla Tomb," *KOMUNHWA (Korea Antiquity)*, Vol. 59, 2002, pp. 64-87.
- K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The Seventh Excavation of the Seongan Village Area within Gongsanseong Fortress, Gongju*, G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8.
- Kwon, Ohyoung, "Retainer Sacrifice in Ancient Yeongnam," *Hanguk Godaesa Nonchong*, Vol. 4, 1992, pp. 5-59.
- Kwon, Ohyoung, "The Ritual of Holy Well,"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Vol. 11, No. 2, 2008, pp. 211-242.
- Lee, Junejeong, Ha, Daeryong, Pak, Sunyoung, Woo, Eunjin, Lee, Chungkyu, Kim, Daehwan, Kim, Jongil, and Han, Younghee, "The Relations of the Dead: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s Buried at Imdang, Gyeongsan, through the Analysis of Mitochondrial DNA from Human Skeletal Remains Interred in Large Mounded Tombs," *Hanguk Kogo-Hakbo*, Vol. 68, 2008, pp. 128-155.
- Lee, Mingyu, "A Study of Stone-Mound Tombs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M. A. thesis, Yonsei University, 2023.
- Moon, Dasol & Yang, Eungyeng,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 for Disposal of Well in the Unified Silla Period in Gyeongju," *Gogo Gwangjang*, Vol. 33, 2023, pp. 161-190.
- National Museum of Korea, *Beopcheon-ri I*,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00.
- Park, Chorong, "A Study on the Waterside Rituals of Baekje,"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Vol. 117, 2025, pp. 209-240.
- Park, Jungguk, "The Regionality of Jung-do Archeological Culture: Reassessment on 'Jung-do Cultural Assemblage',"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11, 2012, pp. 41-88.
- Shin, Seokwon, "A Reexamination of the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ed from the Ancient Site at Gacheon-dong, Daegu," *Hanguk Sanggosa Hakbo*, Vol. 99, 2018, pp. 137-163.
- Woo, Jungyoun, "Re-examination of South Korean Bronze Age Cremation Burial Types," *Hanguk Kogo-Hakbo*, Vol. 125, 2022, pp. 761-791.
- Yeungnam University Museum, *Ancient Tombs of the Imdang Area, Gyeongsan V: Joyeong E I Tomb*,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2000.

Table

Table 1. *Chaîne opératoire* of Skull Selection and Curation

Figure

- Figure 1. Examples of Skulls Recovered from Water-related Features 1 (Baekje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 Figure 2. Examples of Skulls Recovered from Water-related Features 2 (Unified Silla period)
- Figure 3. Examples of Skull Deposition in Silla Tombs
- Figure 4. Examples of Inverted Jar-coffin Burials in the Yeongseo Region
- Figure 5. A Probable Inverted Jar-coffin Burial at Chodang-dong, Gangneung
- Figure 6. Partial Cremation in the Stone Chamber at Sinmae-ri
- Figure 7. Interpretive Model of Changes in Personhood Associated with Skull Selection and Curation